지역 극단 다양한 작품 한눈에 본다

광주연극협, 제35회 연극제 개최
3월2일~8일 문예회관 등서 열려
'사람사이' '청춘' 등 7개 극단 참여
최우수상은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제35회 광주연극제가 오는 3월 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등에서 열린다. 극단 진달래피네의 '폭발'(위)과 극단 사람사이의 '배웅' 연습장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연극제가 올해도 펼쳐진다.

(사)한국연극협회 광주지회(광주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제35회 광주연극제 및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광주 예선대회가 오는 3월2일부터 8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경연에는 극단 사람사이, 시민, DIC, 바람꽃, 청춘, 얼·아리, 진달래피네 등 총 7개 극단이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경연작 중 최우수상에 선정된 작품은 안동, 예천에서 열리는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먼저 경연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은 극단 사람사이의 '배웅'(3월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이다. '배웅'은 고독사, 살인사건 등이 일어난 현장을 청소하는 특수청소부로 일하는 부부와 그 5급 고시에 6번째 낙방한 아들 태산의 이야기로 돈을 모아 가출을 계획하던 태산에게 신문기자인 친구 정민이 취재거리를 요청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극단 시민은 3월3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버닝 다운 더 하우스'(Burning down the house)로 관객과 만난다. 이 작품은 철거반원 4명을 죽인 한 청년이 1980년 12월24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 시간을 거슬러 다시 무대에 올라 당시의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이다.

극단 DIC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맘카페를 통해 마녀사냥을 당한 주인공이 5년 후 자신을 괴롭혔던 여성들을 찾아다니는 내용의 작품 '마녀'를 무대에 올린다. 맘 카페 활동을 하던 연주는 어느날 마녀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는다. 마녀는 '죽일거야'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는다. 3월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극단 바람꽃의 '만선'(3월5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은 배 위에서 서로를 밧줄에 묶고 싸움질에 총질까지 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다. 미장일을 하다 다쳐 술과 도박에 빠진 아버지와 없는 살림에도 교회에 헌금을 쏟아 붓는 어머니, 비리로 수배중인 경찰 아들, 장애로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딸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한 노인 등 5명이 벌이는 사투를 그린다.

얼·아리의 '여우누이'(3월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는 수백년전 어느 산골마을 여우잡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아버지와 가족들의 이야기다. 어느날 여우잡이를 나선 아버지가 주워온 막내가 여우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다른 가족들은 막내를 죽여서 팔아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된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붕괴된 가족의 모습을 그린다.

극단 청춘은 친일파 집안이 스스로 욕망에 갇혀 자멸해 가는 과정을 담은 '적산가옥'을 3월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대에 올린다. 일왕에게 자작의 작위를 받고 조선 각지와 지방을 돌아다니며 징병 지원을 독려하던 최인석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 윤정혜와 그녀의 정부 천태경에게 살해당한다. 학도병이었던 아들 경진은 귀국하자마자 천태경을 찾아내 살해한다. 이 모습을 목격한 윤정혜는 자살하고, 경진은 아편에 중독된 채 살아간다.

마지막 무대는 극단 진달래피네의 '폭발'(3월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이 장식한다. 작품에는 5년 전 광주에서 행방불명 된 철호와 그의 아버지 심학수, 10년전 실종된 딸을 찾는 박용주,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양공주 선녀와 블랙 조, 깊은 수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종선, 대식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해 밑바닥 인생 이야기를 전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23-729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지역 여행업체 대상 협력여행사 모집

광주관광재단은 광주 소재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업태로 하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여행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 여행업계 침체를 극복하고자 기획됐으며, 선발된 협력여행사에는 관광 상품 개발, 판매, 홍보 전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국내여행상품 개발 관련 관광지 상품화, 상품가격 설정, 상품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이후 이커머스, 대형 온라인여행사(OTA)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광 상품을 판매하게 되며,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제 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지역 행사 연계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여행사로 선정되면 관광 전문 박람회에 참가해 일반소비자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미팅, 업계 동향파악의 기회도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3월 19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gjto.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062-611-362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경청하고 공감하고 진정성 있게 말하라

박진영 전 아나운서 '말하기 특강' 펴내

표현능력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시대다. 말이 곧 인품이고 능력이다. 오늘의 사회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복종하는 시대는 아니다.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도 소통의 핵심은 '공감'이므로 마음을 읽고 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언론학 박사로 방송 등에서 15년간 MC와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가 '말하기 특강'(형설)을 발간했다.

눈에 띄는 점은 평소 하지 말아야 할 7가지를 소개한 부분이다. 험담하기와 판단하기, 부정적 언어 사용, 불평하기, 남의 탓하기, 과장과 거짓말, 독단적인 말하기이다. 이에 반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게 말하기에는 정직, 진정성, 도덕성, 사랑을 꼽는다.

저자는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말에도 나타나고 표정과 태도에도 비칠 것이라고 부연한다. 그러한 에너지가 상대에게 좋은 기억을 갖게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성급히 결론을 내리거나 평가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비대면 시대 소통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전달력 자체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목소리와 말투는 말하는 사람의 성품을 투영하고 감정과 마음가짐, 환경까지 드러내기 때문에 온라인 접촉도 대면 접촉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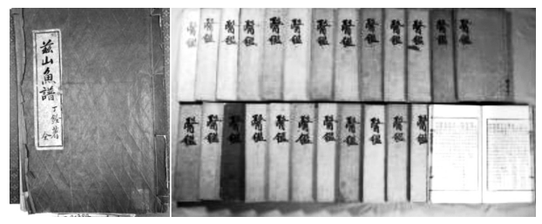
이밖에 책에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질문', '간결하게 말하기', '설득에 이르는 말하기', '말투 다스리기' 등 실제 말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박진영 박사는 대학과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공감과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고 있으며 말하기 방법을 전파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정적 말실수'와 '아나운서처럼 매력 있게 말하기'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약전 '자산어보' 국가과학유산 등록

국립중앙과학관, 허준 '동의보감' 등 7건



'자산어보'(왼쪽)와 '동의보감'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저술한 흑산도 연해 어류 기록인 '자산어보'가 국가과학유산이 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비롯해 허준의 의서 '동의보감' 등 모두 7건을 국가과학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과학기술로 후대 계승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사 자료인 '자산어보'(국립중앙도서관)는 우리나라 어류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분류한 어류 백과사전으로 1946년 제작된 필사본이다.

생물학자가 아니었던 정약전은 실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내용의 충실을 기했다. 책에는 어류와 패류를 비롯해 다양한 수산생물의 분포형태, 습성 등이 실려 있다.

한편 '동의보감'(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한의학이 중의학에 대비되는 민족의학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한 서적으로 평가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 확산에 '정월대보름 구동이 한마당' 취소

최근 광주 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정월대보름 구동이 한마당' 행사가 취소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오는 25일 오후 7시 광주공원 당산나무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월대보름 구동이 한마당'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당초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관람객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해 광주공원 일대 14개 기관의 협약으로 시작된 '광주공원 광합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전통의 소리와 함께 잊혀져 가는 전통과 공동체의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